

# 운젠 지옥 자연 가이드

운젠 여기저기 가이드 시리즈 ①



● 흰단풍철쭉

## 자연공원에서의 규칙

- 식물이나 곤충에 손대거나 새들을 놀라게 하지 않도록 합시다.
- 쓰레기는 만들지도, 버리지도 말고 반드시 가져갑니다.
- 보도, 광장 등 정해진 장소 이외의 지역에는 들어가지 않도록 합시다.
- 큰 소리를 내거나, 라디오 등을 켜 채로 걸지 않도록 합시다.

# 운젠 지옥 순례

운젠 여기저기 가이드 시리즈 ①



## 지옥 유람 시의 주의점

- ① 안쪽은 위험하므로 울타리를 넘어 들어가지 마십시오.
- ② 다음 사람을 위해 쓰레기는 가져 가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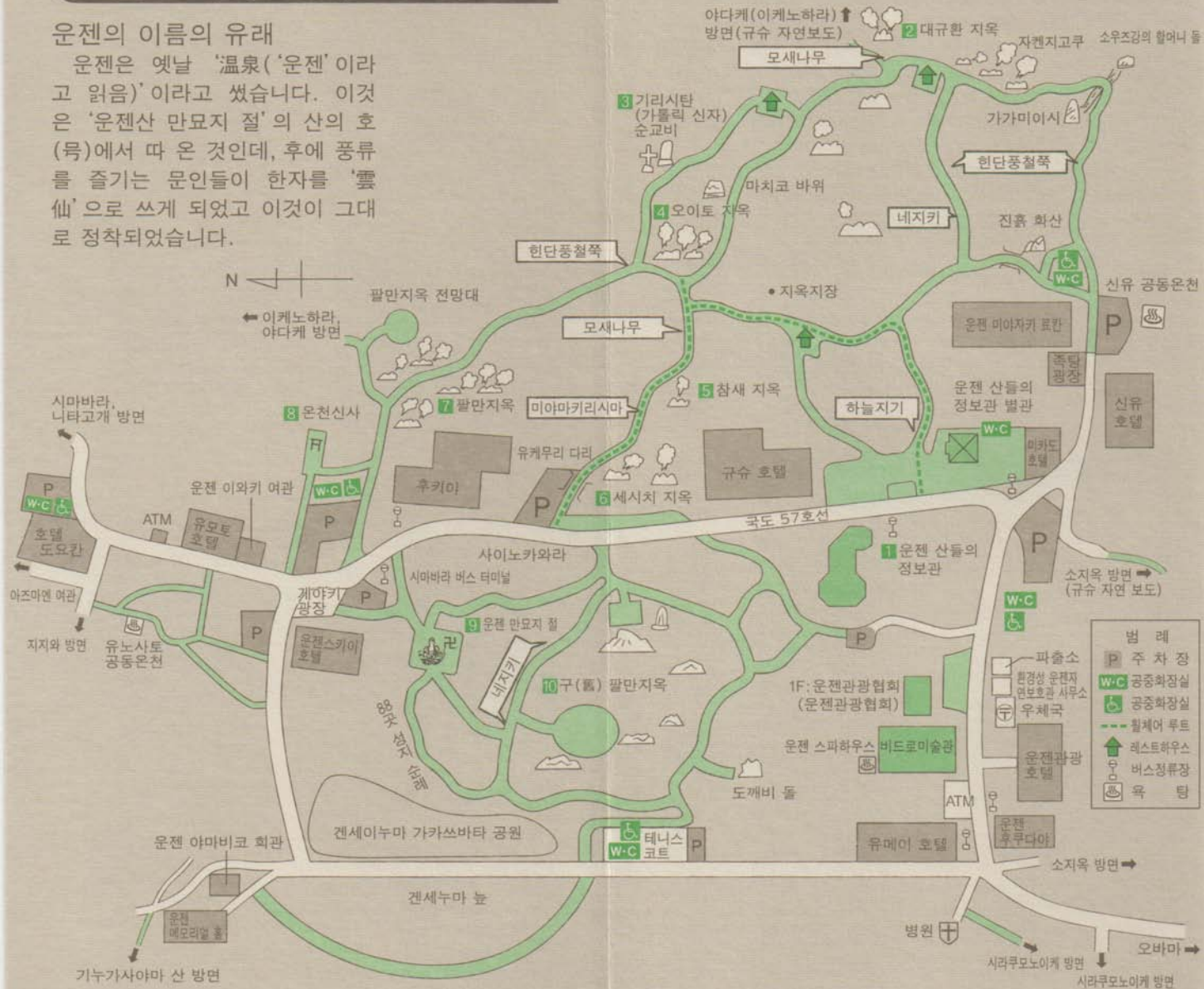
감수·발행 / 운젠 산들의 정보관 운영 협의회  
 우편번호 854-0621 나가사키현 운젠시 오바마초 운젠 320  
 TEL (0957) 73-3636  
 FAX (0957) 73-2136

(URL) <http://www.dango.ne.jp/unzenvc/>

# \*운젠지옥 안내도\*

## 운젠의 이름의 유래

운젠은 옛날 '温泉(‘운젠’이라고 읽음)’이라고 썼습니다. 이것은 '운젠산 만묘지 절'의 산의 호(号)에서 따 온 것인데, 후에 풍류를 즐기는 문인들이 한자를 '雲仙'으로 쓰게 되었고 이것이 그대로 정착되었습니다.



범례	
	주차장
	공중화장실
	공중화장실
	휠체어 루트
	레스토랑/숙박 시설
	버스정류장
	자전거 대여

## \*운젠 지옥의 특징\*

- 1 **운젠 산들의 정보관(입장 무료·목요일 휴관)**  
운젠에 오면 가장 먼저 둘러보고 싶은 시설입니다. 운젠의 자연과 역사를 알기 쉽게 안내하고 설명해 주며, 화산과 온천의 관계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 2 **대규환 지옥**  
지옥에서도 가장 높은 곳에 있으며, 그 엄청난 소리는 마치 지옥에 떨어진 나쁜 인간들이 괴로운 나머지 외치는 아우성처럼 들립니다.
- 3 **기리시탄(가톨릭 신자) 순교비**  
에도 시대 초기, 운젠은 기리시탄들에게 개종을 강요하기 위한 고문 장소로 쓰였으며, 30명 이상의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 4 **오이토 지옥**  
시마바라의 오이토라는 여자가 정부(情夫)와 함께 남편을 죽여서 메이지시대 초기에 처형됐는데, 그 직후 분출하기 시작한 지옥입니다.
- 5 **참새 지옥**  
 짹짹하고 참새가 지저귀는 듯한 소리를 내는 지옥입니다.
- 6 **세시치 지옥**  
에도시대 초기, 세시치라고 하는 나가사키의 가톨릭 신자가 불잡혀서 이곳에서 극형에 처해졌습니다.
- 7 **팔만지옥**  
사람에게 있는 8만 4천 가지 번뇌로 인해 저지른 악업(惡業) 때문에 사후에도 많은 고통을 받는 곳이 이 지옥입니다.
- 8 **온천신사**  
옛날에는 대승원 만묘지 절의 한 신사로써 시멘구(四面宮)라고 불리웠으나, 1916년 온천신사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 9 **운젠산 만묘지 절**  
명승 교키(行基)가 창건한 대승원 만묘지 절의 터에 세운 절입니다. 석가당에 황금색 대불이 모셔져 있습니다.
- 10 **구 팔만지옥(월면지옥)**  
화산의 탄생에서 식물들이 돌아나기까지를 알기 쉽게 보여주는 멋진 살아있는 전시관입니다. 곰보 자국같은 달의 표면과 닮았습니다.

## \*운젠 온천의 역사\*

- 701년 나라 시대의 명승 교키(行基)가 대승원 만묘지 절을 창건. 산호(山号)는 운젠산(温泉山).
- 1115년 한때 쇠퇴했던 만묘지 절을 승려 데소가 다시 일으킴. 승방이 1000개에 달했고, 그 후 400년간 서쪽의 고야산(高野山)으로 번영함.
- 1571년 승려들 간의 싸움인 하쿠자쿠(白雀)의 난 일어남. 지고 오토시(稚児落)의 참극 발생.
- 1627년 시마바라 번주, 나가사키 봉행(옛 관아의 사또) 등이 가톨릭 신자를 탄압. 운젠에서 고문함.
- 1637년 시마바라의 난 일어남.
- 1653년 가토 겐자에몬이 오래된 온천에 치료 목적 온천인 탕치장 '엔레키유(延曆湯)'를 열음.
- 1672년 2대째 가토 고자에몬이 온천 관리인이 됨.
- 1690년 네덜란드상관의 의사 캄펠이 일본 방문. 후에 운젠의 이름을 유럽에 소개.
- 1693년 시마바라 번주, 온천 보호를 위해 산지기를 두고 제찰(制札)을 세움.
- 1731년 고지고쿠에 탕치장이 생김.
- 1775년 운젠산(温泉山) 보호를 위해 산지기를 두고 금지 풋말을 세움.
- 1823년 네덜란드상관의 의사 시볼트가 일본을 방문. 후에 그의 저서 '일본'에서 운젠을 소개.
- 1870년 미국인이 운젠에 숙박. 이후, 규슈에 사는 외국인들의 이용이 증가함.
- 1878년 새 온천이 생김.
- 1889년 상하이의 영자 신문에 운젠이 소개되어, 상하이, 홍콩, 러시아 등에서 피서객들이 찾아옴.
- 1911년 일본 최초의 현립 공원으로 지정됨.
- 1913년 운젠 골프장 개설.
- 1934년 국립 공원으로 지정됨.

## \*운젠지옥\*

운젠의 옛 온천과 새 온천 사이의 하얀 흙(온천여토)에 덮인 일대가 운젠지옥 지대입니다. 지옥이란 불교의 가르침에서 전생에서 저지른 악업에 대한 업보를 받는 곳이라는 의미지만, 가는 곳마다 고온의 온천과 증기가 세차게 분출되어 강한 유황 냄새가 가득한 가운데, 수증기가 몽게몽게 피어오르는 운젠지옥의 모습은 정말 무서운 지옥의 풍경 그 자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운젠지옥의 에너지원은 다치바나만(瀕)의 해저 마그마 웅덩이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마그마 웅덩이에서 발생한 고온 고압 가스는 암반의 갈라진 틈을 통하여 상승하고, 그 과정에서 화학 변화를 일으켜 일단 고온의 뜨거운 물이 됩니다. 그러나, 표고 약700m라는 높은 지역에 있는 운젠의 지표부까지 상승할 수 있는 것은 이 뜨거운 물의 비등(沸騰)으로 인해 생긴 가스뿐이며, 이 가스는 세차게 분출되는 수증기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운젠 온천은 이 가스와 주변 산들의 지하수가 섞여서 생성된 것입니다.

## \*온천과 증기\*

운젠온천의 수질은 황산성의 유황천으로, 강한 산성을 띠고 있습니다. 온천의 최고 온도는 98℃, 주 성분은 철이온, 알루미늄 이온, 황산 이온으로 류마티스, 당뇨병, 피부병에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속속' 하는 소리를 내며 뿜어져 나오는 증기의 최고 온도는 120℃로 그 성분은 대부분이 수증기지만 탄산가스, 황화수소가스를 포함하고 있어 강한 유황 냄새를 풍깁니다.

## \*온천여토·유노하나\*

지옥지대의 암석은 증기 및 온천의 열과 산성수의 영향으로 변질되어 하얗게 탈색된 점토상태의 온천여토가 되어 있습니다.

지옥의 분기공(噴氣孔) 주변에 흰색부터 담황색의 유노하나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분출된 증기의 황화수소가스가 흙 속의 철분과 알루미늄 등과 반응하여 결정화(結晶化)된 것인데, 운젠의 유노나는 온천 물 속이 아니라 지표면에 석출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 \*지옥 주변의 식물들\*

지옥 주변은 황화수소를 포함한 가스와 지열(地熱), 여기에 강산성을 띠는 물과 토양 때문에 식물들이 자라기에는 매우 혹독한 환경입니다. 이 때문에 지옥 주변의 식물 사회는 하늘지기, 억새, 철쭉, 적송 등 이와 같은 악조건들 속에서도 견뎌낼 수 있는 몇 안되는 식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옥의 유황기공(氣孔) 근처에는 어떤 식물들이 자라고 있는지, 또 각각의 식물들이 어디쯤에서 많이 발견되는지 잘 관찰해 보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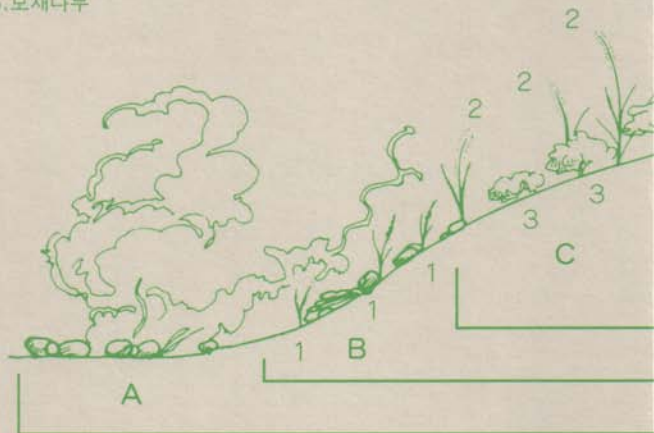
● 네지키 철쭉의 일종으로 멋지게 꼬인 줄기가 눈에 띈다. 꽃은 종 모양이며 6월경에 한 줄로 피기 때문에 밥풀나무라고도 하고, 거울에 어린 줄기가 빨갛다고 해서 누리바시(웃칠한 젓가락) 나무라고도 부른다.



네지키

## 운젠지옥 주변의 식물들

- |                   |          |
|-------------------|----------|
| 1. 하늘지기           | 6. 네지키   |
| 2. 억새             | 7. 적송    |
| 3. 미야마키리시마(운젠 철쭉) | 8. 붓순나무  |
| 4. 흰단풍철쭉          | 9. 다카노쓰메 |
| 5. 모새나무           |          |



●하늘지기 언뜻 보기엔 평범한 풀이지만, 열과 산성에 강하므로 유향기공에서 가까운 곳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규슈 온천지의 특산 식물입니다.

●흰단풍철쭉 높이 3m 정도의 중간 키 정도의 나무로, 5월쯤 크림색의 작은 꽃이 포도송이 모양으로 피며 가을에는 짙은 빨간색으로 단풍이 듭니다.

지옥 주변에 특히 많아서, 국가 천연 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표지).

●미야마키리시마 철쭉과 중에서는 꽃도 작고, 잎도 좁은 종류입니다. 5월경에 적자색, 주황색, 담홍색 등 다양한 색깔의 꽃들을 잔뜩 피웁니다. 온천에서는 그 큰 군락을 여겨져서 볼 수 있습니다.

●모새나무 철쭉의 일종으로 7월경에 종 모양의 꽃이 피니다. 가을이 되면 10월경, 작고 파란 열매를 맺는데 그 맛은 사과와 비슷하여 맛있습니다.



미야마키리시마



모새나무



●적송(赤松) 온천지옥에 있는 대부분은 적송으로, 높은 나무는 100% 이 나무입니다. 전국의 산에 널리 분포하며 줄기 껍질도, 잎도 부드럽고 여성스러워 암컷 소나무라고도 부릅니다. 해안가에 많은 것은 흑송(黒松; 수컷 소나무)입니다.

E 적송·미야마키리시마 군락  
흰단풍철쭉군락

흰단풍철쭉 군락

역새 군락

하늘지기 군락

유향기공

## \*지옥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작은 새들\*

### ☞박새

온천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참새보다 약간 작으며, 특징은 검은 모자에 하얀 볼과 가슴에 있는 넥타이 모양의 굵고 검은 선입니다. 활발히 돌아다니며, '쭈르르-썩썩' 하는 소리로 읊니다.



### ☞오목눈이

여름에는 보통 숲 속에 살지만, 가을부터 겨울에 걸쳐서 무리지는 모습을 온천가 부근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참새보다 작고 꼬리가 몸보다 유난히 길며, '삐-삐-찌르르, 찌르르' 하고 가는 소리로 읊니다.



### ☞멧새

참새보다 약간 크며 등쪽은 밤갈색이고 흰 얼굴에는 검은 선이 있으며, 목은 회백색입니다. 온천에서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볼 수 있으며, 봄부터 여름에 걸쳐서 아름다운 소리로 지저귀는데, 이 소리를 일본에서는 '몇 자 적어 올립니다(一筆 啓上仕り候)' 라고 하는 말로 들린다고 표현합니다.



### ☞노랑할미새

노란색의 배가 눈에 띄는 새입니다. 긴 꼬리를 위 아래로 자주 흔들기 때문에 이시타타키(イシタタキ; 돌두드리기)라고도 부릅니다. 파도 모양으로 날며, 지옥의 수증기가 나오는 곳 바로 옆에 둥지를 짓습니다. 연중 볼 수 있으며 '썩썩 썩썩' 하는 소리로 읊니다.

